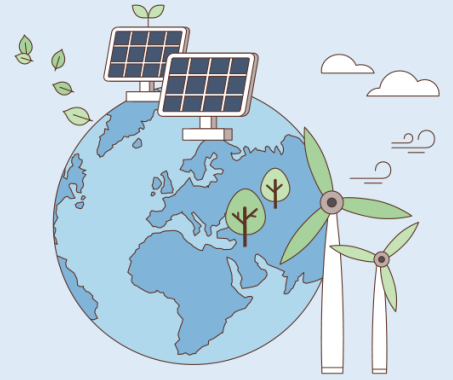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E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 '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개발'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뉴스1*
- "레스토랑부터 브랜드까지"... 식품업계 비건시장 둔 경쟁 '후끈' *녹색경제신문*
- "패션도 석유화학 고탄소 산업, 친환경 비건 패션 모색할 때" *이코노미스트*
- 수소 얻는 '수전해기술' 세계에서 각광...최근 특허출원 뚜렷한 증가세 *뉴스1*
- 현대ENG, 4000억 투자해 폐플라스틱으로 수소 생산 *한국경제*
- 금호석유화학 "ESG경영 고도화 박차"...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노컷뉴스*
- 오리온이 주력하는 친환경 '플렉스 인쇄' 포장재는 무엇인가? *녹색경제신문*
- '원료부터 핵심 부품까지'...포스코, 이차전지 선점 나섰다 *이코노미스트*
- 빨대·스팸 뚜껑 없앤 '플라스틱어택'...이번엔 빵칼이다 *머니투데이*

G (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 SK하이닉스, 단숨에 글로벌 낸드 2위로 *한국경제*
- 진격의 위메이드, 1600억 들여 선데이토즈 품었다 *비즈니스위치*
- 마켓컬리, 2,500억원 프리IPO 투자유치..몸값 4조원 *한국일보*
- 한화솔루션, '가성소다' 설비에 3380억 투자 *조선일보*
- SK디스커버리, SK디앤디 지분 매입...미래사업 발굴 본격화 *머니투데이*
- 트러스톤자산운용, BYC '주주행동' 달올렸다 *더벨*
- 한국타이어가 차남 조현범 회장 승진 분쟁 마무리...단독경영 체제 가속화 *서울경제*
- 포스코, 부회장 30년만에 부활... 김학동 사장 승진 *파이낸셜뉴스*
- 아모레퍼시픽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임원인사 *디지털타임스*

S (Social)

주간 국내 기사

- 소상공인 59% "플랫폼 없이 영업 못해"...74% "매출 절반" *뉴스1*
- 카카오모빌리티, '착한 일자리' 1000개 창출 *경향신문*
- "공동대표일텐 누가 처벌받나"...경총, 중대재해처벌 가이드북 발간 *한국일보*
- 삼성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임무 위반 방지 기준 강화 *헤럴드경제*
- 100대 기업 여자외이사 1년 새 급증...35명→67명 *뉴스1*
- 한화시스템, 임금격차 해소 협약...3년간 549억원 규모 투입 *조선비즈*
- 혁신기업 투자하는 SKT·카카오, 핵심 키워드는 선한 영향력 *파이낸셜뉴스*
- "인권권·브랜드 훼손"...대한항공, 승무원 '룩북 유티버' 고발 *이데일리*
- "샤넬 립스틱 줄 안 서고 산다"...샤넬코리아 노사 합의, 영업 정상화 *한국일보*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 금융권 첫 공공 'ESG포털' 오픈...ESG공시·투자통계 한눈에 *녹색경제신문*
- "석유산업, 탄소 중립 대비해 포트폴리오 조정·정부 지원해야" *이데일리*
- LG, 자체 ESG지수 개발해 관리한다 *아시아경제*
- 올해는 글로벌 ESG 투자 '원년'...성과도 우수했다 *한국경제*
- "ESG 불성실 기업에 책임 묻는다"...블랙록, 내년 주주총회 화두는 *녹색경제신문*
- 국민연금,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에스이뉴스*
- 소울에너지, 글로벌 ESG 평가기관 CDP 파트너로 광복 행보 *이코노미스트*
-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화...재정 투입·법정계획 반영 *뉴스1*
- ESG 기업 노리는 SPAC 늘어난다...지난해 대비 60% 증가 *녹색경제신문*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국제탄소시장 지침 타결과 시사점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2.20

E

- 최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 지침에 대한 합의안이 타결됨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新기후체제에 대한 파리협정 내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신설에 합의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간 자발적인 협력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이후 세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함
-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완성하여 국가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에 대한 투명하고 통일된 국제기준이 마련됨
- 최대 쟁점이던 국제 감축실적의 상응조정 방법을 비롯하여 감축실적의 적응자원 활용 방안, 청정개발체제(CDM)의 지속가능개발체제(SDM)로의 전환 등에 대해 협의를 도출함
- 한편, 동 지침이 '13~'20년 감축 실적의 현 체제로 편입이전을 허용함에 따라 과거 허술했던 탄소저감 기준 하에 생성된 저품질 크레딧의 유입이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희석시킬 것이란 일각의 우려도 대두됨
- COP26을 통한 200여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국가기후목표 선언 및 온실가스 감축 강화로 국제탄소시장의 활용이 증대될 전망이다
- 최근 중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출범하는 등 전세계 배출권거래제 규모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으며, 금번 국제적 탄소시장 합의와 각국의 관심도 증가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탄소배출권 관련 분야로의 자금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COP26을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강화된 반면, 자국 내 기업의 감축활동 등에 따른 감축실적 축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탄소시장 거래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20년 NDC 갱신 75개국 중 85%가 탄소시장 활용 의사를 표명함
- 국제탄소시장 지침 합의 이후에도 실질적인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화를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후속 작업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금번 국제탄소시장 지침 완성으로 각국의 양자간 거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존 탄소배출권거래 시스템의 관리 또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국제탄소시장 체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므로 세부 논의 진행에 따른 추이 관찰 및 국가간 협력방안에 대한 협의 필요

지속가능보고 의무공시 이행을 위한 논의 방향

- 자본시장연구원 21.12.22

A

- 지속가능보고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하여 미래지향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재무보고와 차별적인 개념적 특성을 보임
- 우선 기업은 외부효과의 영향을 받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응해야 하기에 어떠한 주제를 보고해야 할지 중요성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함
- 현재는 이와 관련한 인식 기준 측면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하여 정보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혼선이 있는 상황임. 공시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 기준선 마련이 중요함
- 유럽연합의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RD)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채택 기준은 주요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기준이 활용되어 일관된 비교가 어렵고, 지속가능성 주제의 중요성 판단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공시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지속가능보고지침(CSRD)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해당 지침을 만들기 위한 자문보고서에서는 이중 중요성 원칙과 이니셔티브 채택을 의무화함
- 반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021년 11월 3일에 출범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지속가능보고에 관한 글로벌 기준선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 관점에서 재무적 중요성을 강조하여 유럽연합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 보고기준과는 차별화를 이룰 전망이다
- 국내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보고를 의무화할 예정임
- 다만, '무엇을', '어떻게' 공시하도록 할 것인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럽연합과 같이 시급히 공시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임
- ISSB가 제정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제기준선으로 자리 잡게 되면, 재무보고 기준으로 IFRS를 준용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준거기준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음

탄소중립 경제와 좌초자산 리스크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12.20

E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논의가 확대됨에 따라 탄소 집약적 산업과 화석연료 기반 시설 등에서 상당규모 좌초자산이 발생할 우려가 증가함
- 지난 11월 COP26을 통해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 금융서비스 산업의 녹색화 등을 발표하였으며, 23개 국가가 석탄전력 활용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합의함
- IEA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즉각적 자금공급 중단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 프로젝트의 축소 가능성이 증가함
-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이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하여 추후 화력발전 시설의 좌초자산화 증가가 예상됨
- 전 세계 석탄발전 시설의 좌초자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석탄발전 의존도가 높아 이와 관련된 금융권의 리스크 점검 필요함
-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석탄 35.6%, 가스 26.4%로서 화력발전 의존도가 60% 이상인 반면, 신재생 부분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석탄발전 대체를 위한 아시아 지역의 LNG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가스 시설 또한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좌초자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좌초자산 리스크 증가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회사채 금리 스프레드는 유의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 대출 스프레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기후정책 익스포저는 표준편차 1 증가 시 스프레드가 평균적으로 10bp 상승함. 좌초자산 리스크 증가시 기업은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대출 방식으로 대체됨. 또한 좌초자산 리스크의 금리 반영도는 대형은행보다 소형은행이 높으며, 동 위험 증가시 기업들의 대형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은행 규모가 클수록 위험분산 능력과 많은 완충자본을 갖추고 있음, 정부의 규제금융 가능성이 높아 좌초자산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 좌초자산 리스크가 높은 탄소집약 산업의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조달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형은행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사회적 딜레마와 ESG: 탄소저감 게임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12.20

E

- 화석연료에 의존한 산업사회는 물리적·사회적 두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속가능성 문제는 외부효과 때문이며 개인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과 배치되는 '사회적 딜레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ESG 투자경영에 대하여 간단한 '탄소저감 게임'을 활용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봄. 특히 **공감에 근거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도록 이익의 개념을 확장하는 '계몽된 자기 이익 추구(enlightened self-interest)'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함**
-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두 명의 경기자가 있으며, 각각에게 기존 방식대로 탄소를 배출하는 '현행유지(business as usual)'와 탄소저감의 두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함
- 두 경기자 모두 '현행유지'할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가 악화되어 두 경기자에게 (0, 0)의 보수가 주어지며, 모두 '탄소저감' 선택 시에는 비용은 발생하지만 온난화 문제가 회피되어 (6, 6)의 보수가 주어진다고 가정함
- 한 경기자만 '탄소저감'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온난화 문제가 발생하며, '탄소저감'을 선택한 경기자는 -3의 보수가 주어지고, '현행유지'하는 경기자는 9의 보수가 주어진다고 가정함
- 이 게임을 죄수의 딜레마의 한 유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는 (탄소저감, 탄소저감)이 더 바람직함(이를 Pareto superior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행유지, 현행유지)로 귀결되기 때문임
- 이는 경쟁의 부작용인 'race to the bottom'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임.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 사례는 군비경쟁, 기업 간 광고전쟁, 공해상의 어로활동, 공작새의 꼬리 기르기 경쟁 등 무수히 많음. 개인적 합리성 추구가 사회적 합리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유 지의 비극'에 해당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딜레마의 사례임
- 먼저 외재적 유인 변화로 보수행렬을 변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정부규제에 의한 방법이 있음. 정부가 개입하여 탄소세, 환경 지원금, 탄소배출권 거래 등의 제도를 통하여 유인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자원고갈·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방안임
- 부문별 구조를 파악하여 사회적 비용이 원인제공자에게 부담되게 할 수 있는 정교한 기제설계(mechanism design)를 하는 것임
- 이기심을 상정하여 사회시스템을 설계·운영하되, 추가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등 친사회적 행동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필(必)환경 ESG 시대, 패션산업 친환경 트렌드와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21.12.20

- 패션 기업은 친환경 트렌드를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비용 관점)'와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기회(편익 관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모두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친환경 흐름을 빠르게 수용해 고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ESG가 기업평가의 기준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섬유 및 패션 기업은 효성, SKC 등 극히 일부일 만큼 한국 패션산업은 해외 국가나 다른 산업에 비해 ESG경영으로의 전환이 느린 편임
- 패션산업에서의 친환경 흐름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가치 평가와 정책적 요인이 더해진 ESG경영 및 탄소중립 전환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글로벌 패션산업의 친환경 흐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재(차별화되고 가격경쟁력 있는 친환경 소재), 제품(디자인과 품질), 브랜드(소비의 재미를 더하는 스토리) 3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기업 간 전략적 협업을 통해 친환경 패션의 '디자인 → 원단 및 부자재 생산 → 옷 제조 → 유통 → 폐기의 유기적인 전체 가치사슬 구조를 확립해야 함
- 의류용 고품질 재활용 폴리에스터 칩이 국내에 부족해 원재료 공급의 어려움이 큼. 플라스틱의 완벽한 수거와 분리배출이 이루어지더라도 플레이크 제조를 위한 운반 과정에서 오염에 노출되어 순도를 유지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내 기업은 대만,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연구실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기초과학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상품개발 및 출시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의류 제작 후 필요한 만큼만 염색하는 가먼트 다잉(Garment Dyeing) 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염색공정을 최대한 다운스트림에 가깝게 배치하는 것도 좋은 전략임
- 대기업은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시장 개척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은 전문 브랜드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요구됨. 창업 5년 만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글로벌 친환경 신발 스타트업 '올버즈(Allbirds)'처럼 국내에도 친환경 리딩브랜드를 보유한 히든챔피언이 필요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며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만큼,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공동 기술개발 등 국내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함
- 친환경 트렌드와 함께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패션산업의 질적 성장기 속에서, 시장 전체의 판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히든챔피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견 패션기업의 성장도 중요함
- 대기업이 주로 업스트림 부문에서 기술개발과 마케팅을 하고, 스타트업은 주로 다운스트림 부문에서 제품차별화를 바탕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가운데, 중견 패션기업 역시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임
- 친환경 트렌드를 실속 없이 마케팅 요소로만 활용하는 경우 향후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 환경주의) 사례로 적발되어 기업 이미지가 크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전개하고 타 기업과 협업할 시 유의해야 함
-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폐기 관련 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은 패션 섬유 부문을 넘어 산업용, 의료용으로도 수요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핵심 부문이므로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페트컵 등은 원재료의 혼합 비율이 달라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재활용 섬유 생산을 위해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색상과 소재가 균일화되도록 규격화하는 작업 필요함
- 재활용 섬유로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품선별시설 내 소재별, 색상별 선별 자동화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함
- 친환경 소비시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정보제공 및 수출 판로 개척, 친환경 패션 관련 국제인증 획득, 낙후된 생산설비 개선 지원이 요구됨
- 유럽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친환경 소비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의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친환경 패션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화학적 재활용을 포함한 친환경 섬유 소재 개발 지원이 필요
- 국내 주요 패션기업의 공장들이 다수 분포해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중심으로 낙후된 해외 공장 생산설비를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기업 내부 R&D와 친환경 패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ESG경영과 탄소중립의 큰 흐름에 맞춰 시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에 금융 세제혜택 지원, 대출금리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분야 등 소셜벤처에 대한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와 차별화된 세제혜택 도입 및 사회적 가치평가 체계의 표준 확립이 요구되고 있음

E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21.12.24

E

- 최근 중국은 석탄 수급 불균형과 각 지방정부의 전력 사용제한 조치로 전력난을 겪었음. 중국의 화력발전은 2020년 기준 전체 발전의 약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은 화력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임
- 석탄발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미흡한 가운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국 정부의 지역별 탄소배출 실적 발표와 지방정부의 단전 조치 시행이 이번 전력난의 도화선으로 작용함
- 중국은 현재 석탄 수급 문제가 여전하고 전력시장에서 전력 수요 폭증을 요급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국가임. 본 사태는 중국이 앞으로 계속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한 재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리스크 요인임
- 이같은 상황은 중국에서 주요 원료를 수입하거나 제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 우리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특히, 화학 비료, 철강, 전기차, 태양광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철강수요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중국 정부가 철강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증치세 환급을 폐지함에 따라 철강을 원자재로 수요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등 자국 내 희토류에 대한 통제와 해외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이를 자원 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80%를 상회하여 산업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태양광 산업의 경우 중국은 공급망 전반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웨이퍼, 패널, 모듈 등 소재 부품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 우리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함
- 우리기업은 중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과 수입 제한조치, 비관세장벽 등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함
-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산화리튬, 태양광 웨이퍼, 전지, 모듈 등 신산업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함
- 중국은 언제든지 탄소중립 정책을 등에 업고 또 하나의 수출억력 강화 목록을 발표할 수 있고, '탄소리벨' 의무화 등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친환경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기술 유출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집트 재생에너지 발전 전망 및 시사점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1.12.23

E

- 이집트는 풍부한 천연가스 및 원유자원으로 인해 화력발전이 크게 의존해옴. 그러나 2014년 기록적 폭염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수출 연료 가격의 왜곡 등으로 에너지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에너지 위기 사태가 발생함
- 위기 발생 전인 2005~13년 동안 이집트는 전력 소비보다 더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하였으나(2009년 공급 604억 입방미터, 소비 409억 입방미터), 이후 천연가스 생산의 감소와 전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음
- 이에 이집트 정부는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을 높이고자 통합적 에너지 다각화 전략(SES 2035)을 채택, 2035년까지 총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42% 달성을 목표로 하며 발전 잠재성이 높은 풍력, 태양 에너지원 개발에 초점을 두기 시작함
- 이집트 정부는 재생에너지법, 신전력법, 신투자법 및 발전차액 지원제도, BOO 계약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이집트 정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 발전전략(SDS 2030)과 에너지 보조금 축소 정책은 재생에너지 수요 및 공급을 점차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는 높은 평균 풍속과 일사량으로 풍력 및 태양에너지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 1993년 후르가다에 최초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한 이후 다국적 컨소시엄이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참여하면서 풍력발전량은 2001/02년 260GWh에서 2019/20년 4,233GWh로 크게 증가했으며, 전체 2,200MW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건설 또는 개발 중임
- 또한 풍력 에너지 활용 증가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화피 탄소 배출량은 2001/02년 14만 3천 톤에서 2015/16년 113만 톤으로 증가함
- 태양에너지 발전량도 2011년 쿠라이마트에 위치한 140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20년에는 전년대비 190.5% 증가한 4,430GWh에 다다랐으며, 이집트 정부는 2027년까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3,500MW까지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프로젝트 완료 시 비수력 재생에너지 비중의 높은 증가가 예상됨

국내 수출의 특징과 향후 과제

-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21.12.21

A

- 금년 우리나라 무역액은 선진국 수요 확대, 주력 품목 수출 호조 등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국내 경제회복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 수출 부문에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짐
- 1) 반도체 수출 증가임. 금년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국내 경기 회복을 견인하였음
- 2) 자동차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였음. 다만 최근 글로벌 이슈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음
- 3)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관련 수출이 급증하였음
- 4) 시장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한 신성장 산업들이 수출 유망품목으로 성장하였음
- 국내 수출이 호조를 보이지만 향후 국내 수출을 위협할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음
- **반도체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음. 비대면산업이 활성화되고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반도체 수요 대비 공급이 증가함**
- D램(DDR4 8Gb) 현물 가격은 금년 3월중 5.3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내림세를 보임. 대규모 장치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수요와 공급 차이에 따라 2년 내외 주기로 가격 등락을 반복함
-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내년 메모리반도체 시장 성장률이 2021년 25.6%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2년 8.5%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함
- 또한 미 테이퍼링이 본격화하며 일부 취약신흥국 중심으로 경기둔화 및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됨
- 중국경제가 금년 경기 정점을 기록한 이후 내년부터 성장모멘텀이 약화할 가능성이 큼. 현재 국내 수출 경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에 적극 대응이 필요함
- 우선 특정 지역의 생산 중단, 봉쇄, 수출금지 등에 취약한 현재 글로벌 공급망을 개선하고 주력 수출품목 다양화가 필요함. 에너지전환 정책을 고부가 신산업 육성 기회로 활용하여야 함
- 미 테이퍼링이 본격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신흥국 수입수요 감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 경제성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간재 중심의 對 중국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IH2O

iShares Global Water UCIT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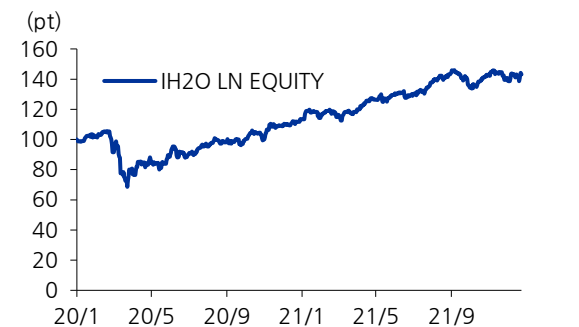
- 미국 상장 기업 중 매출 상당 부분이 식수 또는 폐수처리 산업에서 발생하는 종목 대상
-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 3개월 일평균 거래대금 50만 달러 이상, 유동주식비율 20% 이상 종목 대상
-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시가 총액 상위 36개 기업을 선정
- 상위 1-10위 종목: 4%, 11-15위: 3.5%, 16-20위: 3.0%, 21-30위: 2.0% 이외 종목들은 동일가중 방식으로 비중 결정

ETF 개요

티커	IH2O LN EQUITY
상장일	2007-03-20
운용사명	iShares ETFs/Ireland
총보수율(%)	0.65
기초지수	S&P Gb Water USD Net Total Return Index
가중 방식	Basket
주당 가격(달러)	70.13
보유종목 수	56
시가총액(백만달러)	2833.6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24일 기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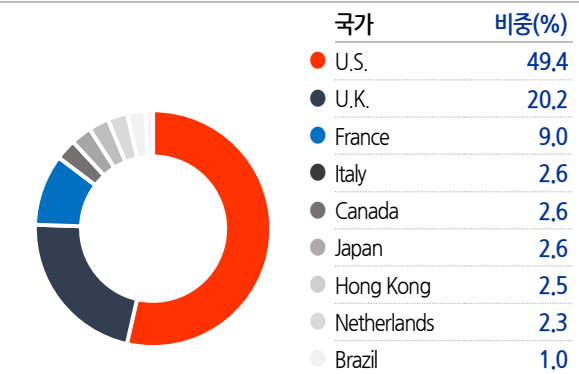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24일 기준
 주: 2019.12.31 증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AWK US	American Water Works	33,054	9.7
XYL US	Xylem Inc/NY	21,188	7.9
VIE FP	Veolia Environnement	25,211	5.4
HLMA LN	Halma PLC	15,981	5.3
GEBN SW	Geberit AG	28,601	5.0
WTRG US	Essential Utilities Inc	13,198	4.7
UU/ LN	United Utilities Group	9,985	4.4
SVT LN	Severn Trent PLC	9,905	4.4
PNR US	Pentair PLC	11,785	4.3
SEV FP	Suez SA	14,331	3.5
합계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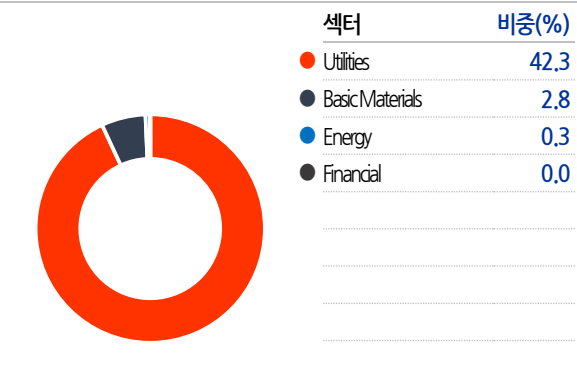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24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2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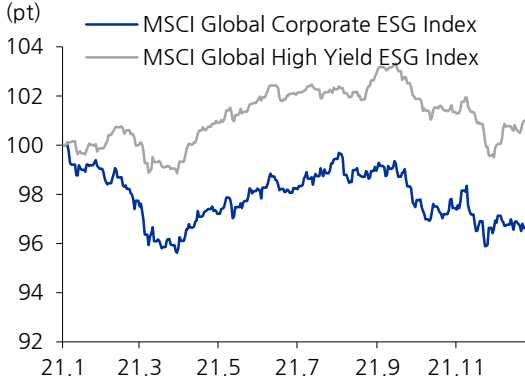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2월 24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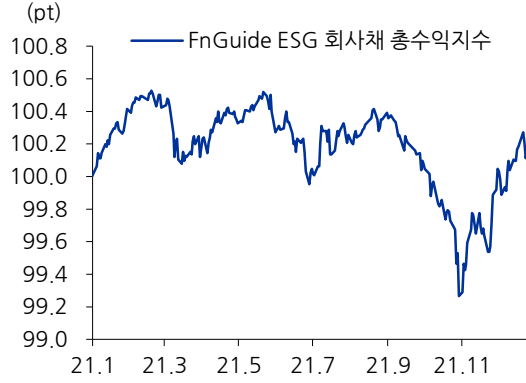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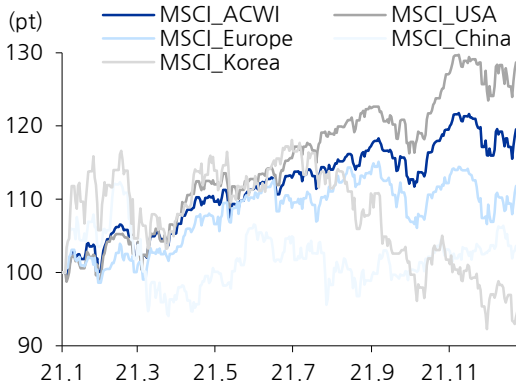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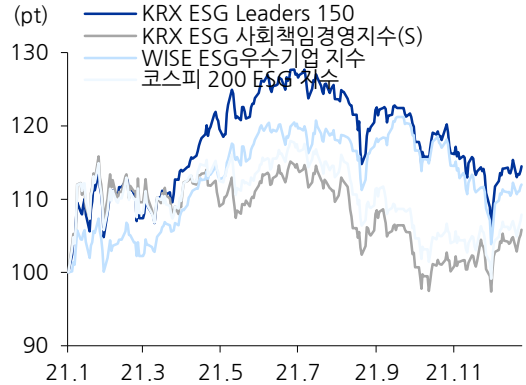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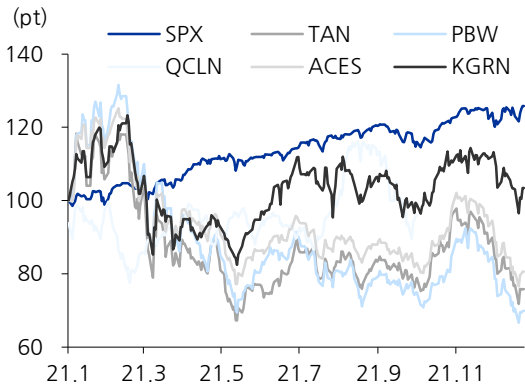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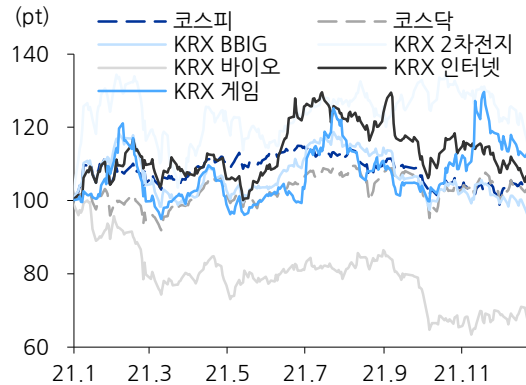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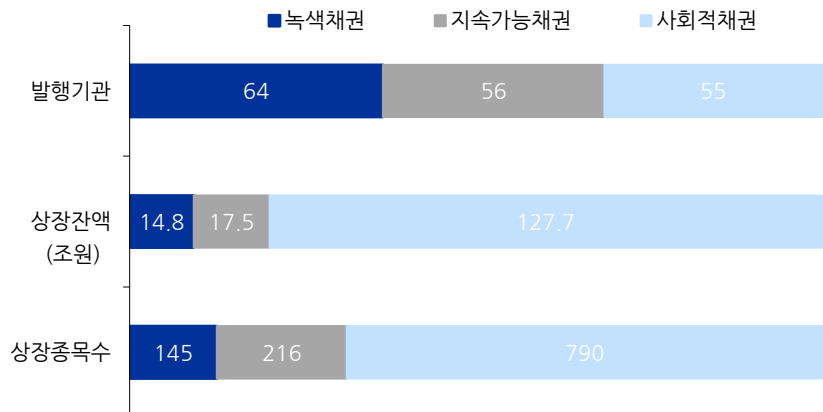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지속가능채권	메리츠캐피탈 197-1(지)	2021/12/21	2.80600	60,000
지속가능채권	메리츠캐피탈 197-2(지)	2021/12/21	2.83100	110,000
지속가능채권	메리츠캐피탈 197-3(지)	2021/12/21	2.85200	3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6(1-1)(사)	2021/12/20	1.94100	93,5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6(1-2)(사)	2021/12/20	2.28100	2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6(1-3)(사)	2021/12/20	2.56500	18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6(1-4)(사)	2021/12/20	2.53400	8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3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